

2021년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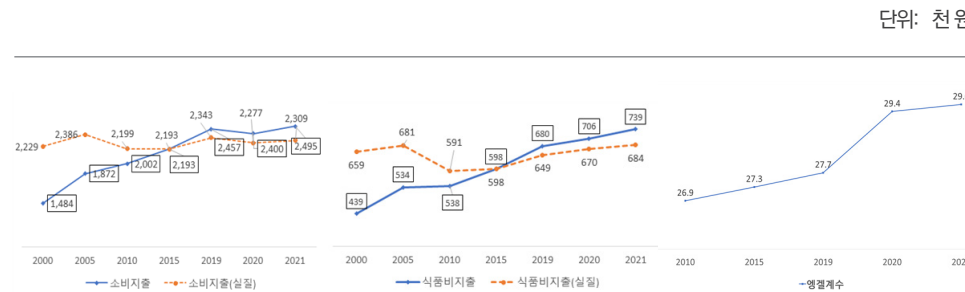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심층 분석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자 가계 소득과 지출을 조사·발표해 오고 있으며, 2022년 3월 초 '2021년도 가계동향조사'의 원자료(전국 7,200가구 대상 월평균 소득지출 조사 자료)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발표함.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가계동향조사의 2021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의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 2021년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비 지출 변화

-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에 전년대비 2.3%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49만 4,854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여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함.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금액 기준으로 2021년 가구당 소비지출액은 230만 8,920원으로 2020년에 비해 1.4%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1.5% 감소한 수준임.
- 한편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 19 이후 2020년 3.8%, 2021년에 3.4%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73만 9,108원을 기록함.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실질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에 68만 4,025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폭은 2020년 대비 크게 둔화됨.

- 엔겔계수(전체 소비지출액에서 식품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는 2019년 27.7에서 2020년 29.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29.6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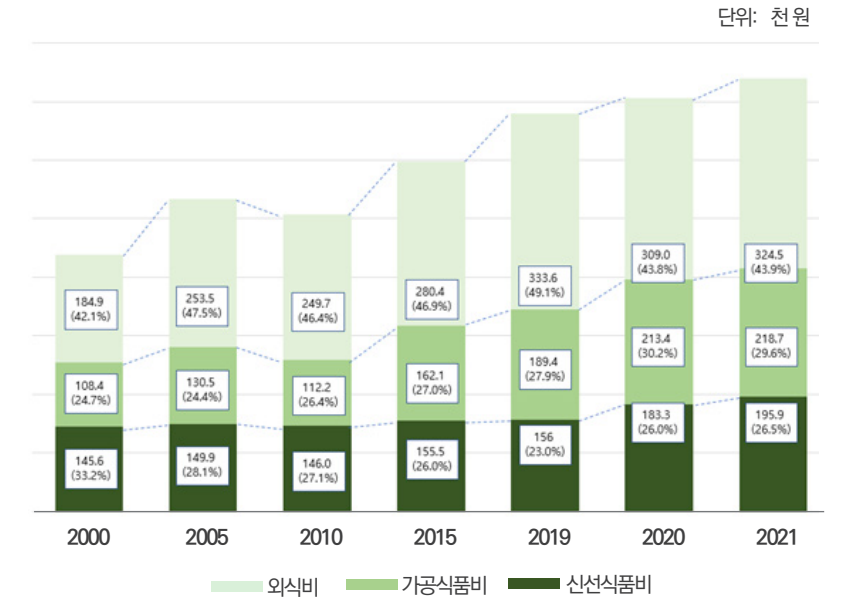
주 1. 각 지출액은 명목 금액 기준이며, 실질금액 환산방법은 소비지출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로, 식품비 지출의 경우 지출목적별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지수로 각각 해당 지출액을 디플레이트하여 합산한 것임.

2. 식품비 지출액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외식비)를 포함한 것이며, 담배는 제외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식품비를 신선, 가공, 외식으로 구분하여 지출추이를 살펴보면, 신선식품비(신선식품 지출액)는 2019년까지 대체로 정체되었으나 2020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식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17.2%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1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6.8%가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은 2021년 21만 8천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함. 외식비는 2021년에는 32만 4천 원으로 2019년의 33만 4천원에는 못 미치지만, 2020년 30만 9천 원에 비해서 5%가 증가함.
- 2021년에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지출액이 전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신선식품>외식>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나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동함. 신선식품 비중은 26.5%로 전년도의 26.0%에 비해 0.5%p 증가한 반면, 외식비는 43.9%로 전년도의 43.8%와 비슷하고 가공식품은 29.6%로 전년도의 30.2%에 비해 0.6%p 감소함.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 2021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 변화

- 가공식품 분류별로 2021년에 가장 지출액이 큰 분류는 곡물가공품으로 가구당 월평균 4만 5,005원 지출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함. 곡물가공품은 과거부터 꾸준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010년대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가공식품 합계 중에서 20.6%를 차지함.
- 2021년 가구당 월평균 당류 및 과자류의 지출액은 2만 6,955원으로 곡물가공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임. 당류 및 과자류 비중은 2015년 14.8%로 높았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1년에 12.3%로 나타남.
- 기타식품의 경우에는 지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매년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임. 기타식품 지출액은 2010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 증가하여, 2021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만 5,183원, 11.5%를 차지하고 있음.
- 조미식품은 식생활의 외부화 등으로 비중이 축소되어 2015년과 2019년 6%대가 유지되었으나, 집밥 확대에 힘입어 2020년 22.0% 증가하였으며 2021년 지출액은 1만 5,772원(7.2%)으로 2020년 수준이 유지됨.

- 주류의 경우 꾸준히 소비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 1만 7,449원으로 2020년의 1만 5,673원에 비해 1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수산가공품은 2021년 가구당 월평균 1만 8,349원을 지출하여 금액 및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과일가공품의 경우 금액은 4% 증가하였으나, 지출액 규모가 3,000원 선으로 비중은 1.7%로 높지 않은 상황임.
- 가계동향조사의 가공식품 세부 품목 단위로 지출액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품목을 살펴봄. 2021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빵 및기타빵, 한과및기타과자, 즉석·동결식품 순이며, 식빵및기타빵, 한과및기타과자는 매년 3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잡음.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

품목 분류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연평균증감율	
								2000-2010	2010-2021
곡물가공	19,837 (18.3)	24,081 (18.5)	30,775 (21.6)	33,136 (20.4)	38,173 (20.2)	43,304 (20.3)	45,005 (20.6)	4.5%	3.5%
육가공	7,330 (6.8)	6,702 (5.1)	7,977 (5.6)	9,634 (5.9)	12,189 (6.4)	14,470 (6.8)	14,871 (6.8)	0.8%	5.8%
수산가공	15,596 (14.4)	17,436 (13.4)	15,234 (10.7)	16,918 (10.4)	16,798 (8.9)	18,891 (8.9)	18,349 (8.4)	-0.2%	1.7%
유가공	17,661 (16.3)	19,898 (15.2)	20,858 (14.7)	20,369 (12.6)	20,189 (10.7)	21,362 (10.0)	21,243 (9.7)	1.7%	0.2%
유지류	2,365 (2.2)	2,265 (1.7)	2,449 (1.7)	2,697 (1.7)	2,579 (1.4)	3,291 (1.5)	3,645 (1.7)	0.4%	3.7%
과일가공품	370 (0.3)	731 (0.6)	1,281 (0.9)	2,866 (1.8)	3,321 (1.8)	3,461 (1.6)	3,613 (1.7)	13.2%	9.9%
채소가공품	1,312 (1.2)	1,223 (0.9)	2,097 (1.5)	2,152 (1.3)	2,493 (1.3)	2,968 (1.4)	2,961 (1.4)	4.8%	3.2%
당류 및 과자류	12,557 (11.6)	17,398 (13.3)	18,964 (13.3)	23,915 (14.8)	25,168 (13.3)	27,375 (12.8)	26,955 (12.3)	4.2%	3.2%
조미식품	10,148 (9.4)	11,766 (9.0)	10,085 (7.1)	11,170 (6.9)	12,797 (6.8)	15,616 (7.3)	15,772 (7.2)	-0.1%	4.1%
기타식품	4,969 (4.6)	7,406 (5.7)	8,627 (6.1)	11,059 (6.8)	19,960 (10.5)	23,524 (11.0)	25,183 (11.5)	5.7%	10.2%
커피 및 차	4,015 (3.7)	4,831 (3.7)	6,151 (4.3)	6,659 (4.1)	8,239 (4.4)	9,110 (4.3)	9,414 (4.3)	4.4%	3.9%
쥬스 및 음료	6,946 (6.4)	9,718 (7.4)	9,393 (6.6)	10,717 (6.6)	13,716 (7.2)	14,366 (6.7)	14,279 (6.5)	3.1%	3.9%
주류	5,249 (4.8)	7,039 (5.4)	8,268 (5.8)	10,767 (6.6)	13,779 (7.3)	15,673 (7.3)	17,449 (8.0)	4.6%	7.0%
합계	108,354 (100.0)	130,495 (100.0)	142,159 (100.0)	162,059 (100.0)	189,401 (100.0)	213,411 (100.0)	218,739 (100.0)	2.8%	4.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우유는 2000년과 2005년, 2015년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과 2019년에는 3위, 2020, 2021년에는 5위로 하락하면서 점점 후순위로 밀리며 비중 또한 감소함.
- 즉석·동결식품은 2000년 조사에서는 30위권내에 들지 못하였으나, 2005년 23위, 2010년 21위, 2015년 11위, 2019년 4위를 기록하였고 2020, 2021년에는 3위를 차지하며 빠르게 순위가 높아지고 있음.
- 말린 고추는 2000년도 5위, 2005년도 6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한 품목이었으나 2010년 14위, 2015년에는 17위까지 하락함. 2020년 14위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15위로 다시 하락함.

연도별 지출액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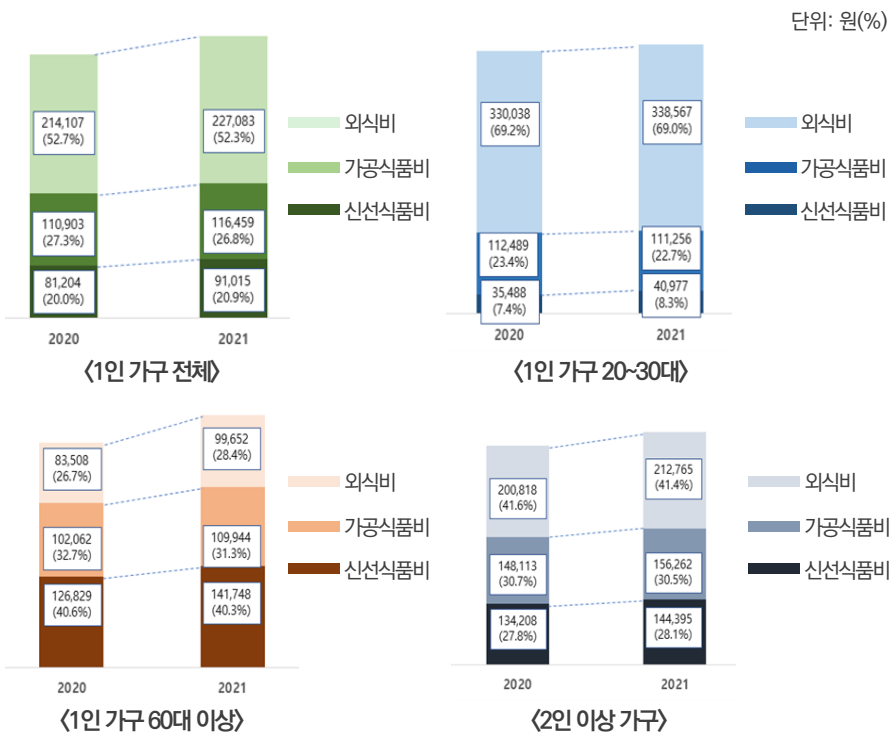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우유	9.2	1 우유	8.6	1 우유	8.4	1 한과및기타과자	7.8	1 식빵및기타빵	7.8	1 식빵및기타빵	7.4	1 식빵및기타빵	7.7
2 한과및기타과자	6.2	2 한과및기타과자	7.5	2 식빵및기타빵	7.2	2 식빵및기타빵	7.4	2 한과및기타과자	7.2	2 한과및기타과자	6.8	2 한과및기타과자	6.4
3 식빵및기타빵	6.0	3 식빵및기타빵	5.5	3 한과및기타과자	7.2	3 우유	6.8	3 우유	5.2	3 즉석·동결식품	5.0	3 즉석·동결식품	5.0
4 기타육류가공품	4.3	4 기타음료수	3.7	4 라면류	3.4	4 기타육류가공품	3.5	4 즉석·동결식품	4.9	4 기타육류가공품	4.8	4 기타육류가공품	4.9
5 말린 고추	3.7	5 라면류	3.7	5 커피	3.3	5 맥주	3.5	5 기타육류가공품	4.5	5 우유	4.7	5 우유	4.4
6 김	3.3	6 말린 고추	3.5	6 기타육류가공품	3.3	6 아이스크림	3.4	6 맥주	3.7	6 맥주	3.6	6 맥주	3.8
7 라면류	3.3	7 김	3.5	7 아이스크림	3.3	7 라면류	3.2	7 기타음료수	3.4	7 라면류	3.3	7 반찬류	3.6
8 기타음료수	3.3	8 요구르트	3.3	8 요구르트	3.2	8 기타음료수	3.2	8 커피	3.3	8 커피	3.3	8 커피	3.3
9 요구르트	3.1	9 과일 및 야채쥬스	3.3	9 기타음료수	3.2	9 커피	3.1	9 라면류	3.2	9 아이스크림	3.1	9 아이스크림	3.2
10 떡	3.0	10 기타육류가공품	2.9	10 떡	2.9	10 요구르트	3.1	10 반찬류	3.0	10 기타음료수	3.0	10 기타음료수	2.9
11 커피	2.8	11 아이스크림	2.9	11 과일 및 야채쥬스	2.7	11 즉석·동결식품	2.6	11 아이스크림	2.9	11 반찬류	3.0	11 라면류	2.9
12 분유	2.8	12 떡	2.7	12 맥주	2.6	12 기타곡물가공품	2.4	12 요구르트	2.8	12 요구르트	2.8	12 기타곡물가공품	2.7
13 과일 및 야채쥬스	2.7	13 커피	2.7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떡	2.3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6	13 요구르트	2.7
14 아이스크림	2.6	14 맥주	2.3	14 말린 고추	2.4	14 과일 및 야채쥬스	2.3	14 과일 및 야채쥬스	2.3	14 말린 고추	2.5	14 떡	2.3
15 맥주	2.3	15 기타곡물가공품	2.0	15 두부	2.0	15 반찬류	2.1	15 떡	2.3	15 떡	2.3	15 말린 고추	2.2
16 햄 및 베이컨	2.0	16 분유	1.9	16 케이크	1.9	16 케이크	2.1	16 말린 고추	2.2	16 과일 및 야채쥬스	2.2	16 소주	2.1
17 기타곡물가공품	1.9	17 두부	1.8	17 반찬류	1.8	17 말린 고추	1.9	17 소주	1.9	17 소주	2.1	17 케이크	2.0
18 두부	1.6	18 반찬류	1.8	18 김	1.7	18 소주	1.8	18 케이크	1.8	18 케이크	1.8	18 과일 및 야채쥬스	1.9
19 젓갈	1.5	19 소주	1.8	19 햄 및 베이컨	1.6	19 과일가공품	1.8	19 과일가공품	1.8	19 과일가공품	1.6	19 과일가공품	1.7
20 참기름및들기름	1.5	20 햄 및 베이컨	1.6	20 소주	1.6	20 두부	1.7	20 생수	1.6	20 김치	1.6	20 생수	1.6
21 소주	1.5	21 케이크	1.4	21 즉석·동결식품	1.5	21 햄 및 베이컨	1.6	21 두부	1.4	21 생수	1.5	21 두부	1.5
22 반찬류	1.4	22 마른멸치	1.3	22 채소가공품	1.5	22 김	1.4	22 김치	1.3	22 두부	1.5	22 김치	1.5
23 마른멸치	1.4	23 즉석·동결식품	1.3	23 마른멸치	1.4	23 채소가공품	1.3	23 채소가공품	1.3	23 채소가공품	1.4	23 채소가공품	1.4
24 케이크	1.3	24 잼,꿀,조청	1.3	24 김치	1.3	24 수산동물통조림	1.1	24 김	1.3	24 김	1.3	24 기타조미식품	1.2
25 잼,꿀,조청	1.2	25 수산동물통조림	1.2	25 분유	1.2	25 생수	1.1	25 햄 및 베이컨	1.2	25 기타조미식품	1.2	25 김	1.1
26 어묵	1.2	26 김치	1.1	26 수산동물통조림	1.2	26 어묵	1.1	26 차	1.0	26 햄 및 베이컨	1.2	26 햄 및 베이컨	1.1
27 채소가공품	1.2	27 두유	1.1	27 기타미분류식품	1.2	27 잼,꿀,조청	1.0	27 두유	1.0	27 차	1.0	27 차	1.0
28 기타조미식품	1.2	28 기타조미식품	1.0	28 국수류	1.1	28 마른멸치	1.0	28 사탕 및 젤리	1.0	28 치즈	1.0	28 두유	1.0
29 마른오징어	1.2	29 젓갈	1.0	29 두유	1.1	29 차	1.0	29 기타조미식품	1.0	29 국수류	1.0	29 국수류	1.0
30 수산동물통조림	1.1	30 어묵	1.0	30 어묵	1.1	30 치즈	0.9	30 수산동물통조림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3. 가구원 수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

-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면 2021년 신선 식품, 가공 식품, 외식 지출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식품 유형별 비중은 신선식품은 약간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과 외식비 비중은 약간 감소한 특징을 보임.
 - ▶ 신선 식품비 비중은 1인 가구 0.9%p, 2인 이상 가구는 0.3%p 상승
 - ▶ 가공 식품비 비중은 1인 가구 0.5%p 하락, 2인 이상 가구 0.2%p 하락
 - ▶ 외식비 비중은 1인 가구 0.4%p 감소, 2인 이상 가구 0.2%p 감소
-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식료품비 지출 구성에 큰 차이를 나타냄. 20~30대 1인 가구는 외식비 비중이 70% 수준에 달하며, 2020년 69.2%에서 2021년 69.0%로 약간 줄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8,529원이 증가함. 가공식품비 비중은 2020년에 22.7%로 전년도 대비 0.7%p 감소함.

가구원 수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신선식품비중이 2021년에 40.3%로 가장 크고, 가공 식품비중도 31.3%(10만 9,944원)로 외식비 보다 큼. 2021년 가공식품비 비중은 전년대비 -1.4%p 감소함.
- 가공식품 분류별로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곡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2%, 2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제품과 과일 가공품, 채소가공품 비중은 공통적으로 모두 1.5% 내외의 낮은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12.3%), 커피 및 차(5.3%), 주스 및 음료(8.5%), 주류(10.1%)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육가공(7.0%), 수산가공(9.3%), 유가공(10.2%), 당류 및 과자류(12.8%)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30대 1인 가구는 곡물가공(24.7%), 주류(15.1%), 당류 및 과자류(14.4%), 기타식품(13.3%), 주스 및 음료(11.1%)가 높은 비중을 점함.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조미식품(14.9%)이 월등히 높고, 수산가공(16.2%), 유가공(7.6%), 채소가공(1.9%), 과일가공(1.9%)이 상대적으로 높음.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단위: %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곡물가공	20.2	24.7	17.3	20.0
육가공	4.6	5.0	4.3	6.8
수산가공	7.9	7.0	16.2	13.5
유가공	8.3	4.5	7.6	7.0
유제품	1.4	0.6	2.9	1.7
과일가공품	1.6	1.0	1.9	1.7
채소가공품	1.3	0.5	1.9	1.4
당류 및 과자류	11.2	14.4	8.2	12.0
조미식품	7.3	2.3	14.9	7.4
기타식품	12.3	13.3	10.0	11.0
커피 및 차	5.3	0.6	3.7	4.1
주스 및 음료	8.5	11.1	4.9	6.1
주류	10.1	15.1	6.2	7.3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단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식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의 비중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남. 3순위 품목은 1인 가구의 경우 즉석·동결식품이, 2인 이상 가구는 기타유류가공품이 차지함.

- 1인 가구는 맥주와 커피의 순위가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된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인 이상 가구에서 우유가 5위인데 반해 1인 가구에서는 6위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인 가구는 소주와 생수의 순위도 각각 12와 14위로 2인 이상 가구의 16, 21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2인 이상 가구에서는 30위권 밖으로 나타난 와인 및 과일주도 24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주류와 주스 및 음료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말린 고추(7.0%)가 1위를 점하고 있어, 독거부모세대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고춧가루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가공식품 지출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우유와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지출 비중이 높고, 반찬류(4위)와 김치(14위) 지출비중도 증가한 점도 특징적인 변화임. 또한 떡류(8위), 소주(11위), 참깨 및 들깨(13위), 두부(15위), 젓갈(17위)은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순위를 나타냄.

1인 가구의 지출액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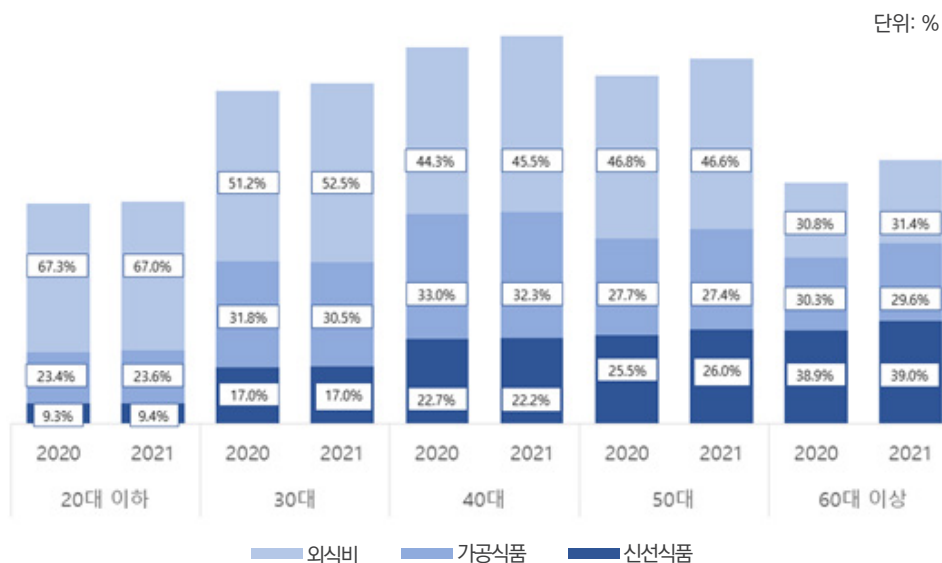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순위	품목	%	순위	품목	%	순위	품목	%
1	식빵 및 기타빵	7.6	1	식빵 및 기타빵	10.5	1	말린 고추	7.0
2	한과 및 기타과자	5.9	2	즉석 동결식품	8.2	2	우유	5.0
3	즉석 동결식품	5.4	3	한과 및 기타과자	7.9	3	식빵 및 기타빵	4.8
4	맥주	5.1	4	맥주	7.3	4	반찬류	4.3
5	커피	3.9	5	기타음료	5.3	5	한과 및 기타과자	3.7
6	우유	3.8	6	커피	4.2	6	기타유류가공품	3.5
7	반찬류	3.7	7	아이스크림	4.2	7	요구르트	3.5
8	기타유류가공품	3.6	8	기타곡물가공	3.8	8	떡	3.3
9	기타음료	3.5	9	케이크	3.6	9	기타곡물가공품	2.9
10	기타곡물가공품	3.5	10	생수	3.5	10	커피	2.8
11	라면류	3.2	11	라면류	3.4	11	소주	2.7
12	소주	3.0	12	기타유류가공	2.7	12	즉석 동결식품	2.4
13	아이스크림	2.8	13	와인 및 과일주	2.7	13	참깨 및 들깨	2.3
14	생수	2.8	14	우유	2.5	14	김치	2.2
15	말린 고추	2.7	15	반찬류	2.1	15	두부	2.2
16	요구르트	2.4	16	소주	2.0	16	라면류	2.2
17	떡	2.0	17	양주	1.9	17	젓갈	2.0
18	김치	2.0	18	과일 및 야채주스	1.5	18	두유	2.0
19	케이크	1.9	19	요구르트	1.4	19	생수	1.9
20	과일 및 야채주스	1.7	20	김치	1.1	20	과일가공품	1.9
21	과일가공품	1.6	21	차	1.0	21	맥주	1.9
22	두유	1.3	22	과일가공품	0.9	22	채소가공품	1.9
23	두부	1.3	23	기타조미식품	0.9	23	참기름 및 들기름	1.8
24	와인 및 과일주	1.3	24	떡	0.8	24	기타음료	1.7
25	채소가공품	1.1	25	두유	0.8	25	마른멸치	1.6
26	차	1.1	26	햄 및 베이컨	0.8	26	아이스크림	1.6
27	김	1.0	27	초콜릿	0.8	27	김	1.5
28	젓갈	0.9	28	치즈	0.7	28	잼, 꿀, 조청	1.3
29	양주	0.9	29	소시지	0.6	29	과일 및 야채주스	1.2
30	참깨 및 들깨	0.9	30	사탕 및 젤리	0.6	30	기타수산물가공품	1.0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4.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

-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식품비 지출이 가장 많고, 50대, 30대 가구의 순서임. 가구주가 40대인 가구는 가공식품 지출 비중이 32.3%로 가장 큰 특징을 보임.
- 2020년 대비 2021년 가공식품비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는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로 2020년 31.8%에서 2021년 30.5%로 1.3%p 감소하였고, 금액으로는 가구당 4,728원 가량이 감소한 것임.
- 다른 연령대에서 가공식품비의 비중이 감소한 데 비해,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의 경우 가공식품비의 비중이 0.2%p 증가함. 지출금액 또한 가공식품비 지출액 2,261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가구주 60대 이상 가구로 2021년 지출 비중이 39.0%에 달하며, 이는 가구주 30대 가구 지출 비중 17.0%의 두 배 이상, 가구주 20대 이하 가구 지출 비중 9.4%의 4배 가까운 수준임.
- 외식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가구주 20대 이하로 67.0%에 달하며, 30대 52.5%, 40~50대 46% 정도, 60대 이상 31.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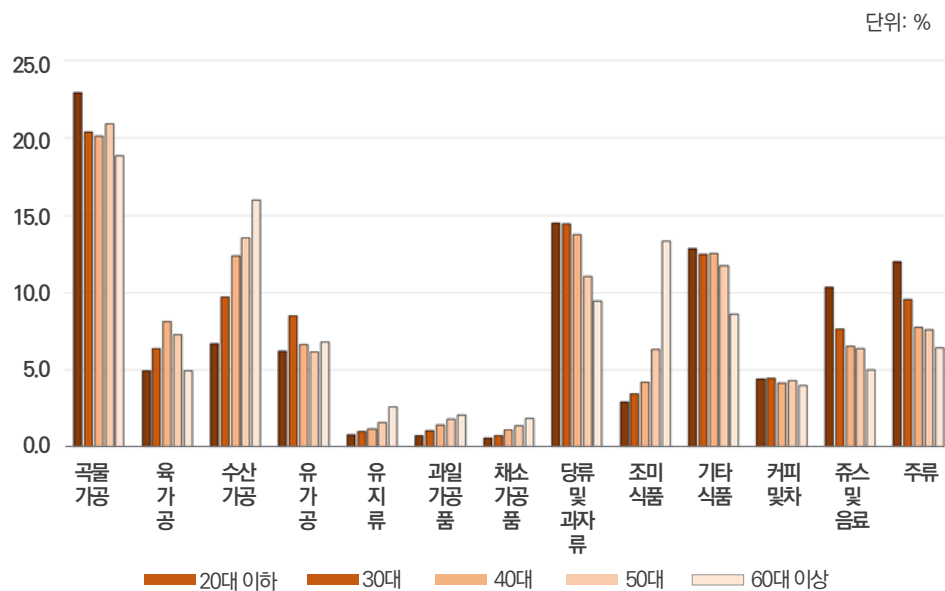
가구주 연령대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로 지출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특히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는 22.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가구는 18.9%로 나타남.
-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과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유지류, 조미식품의 비중도 증가하는 특징이 있어, 집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됨.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조미식품 비중은 13.3%로 20대 가구주 2.9%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 반면,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주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조를 이룸.
-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 40대까지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중이 함께 증가하지만 5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육가공품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다 60대 이상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 가구를 제외한 다른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식빵 및 기타빵의 비중 순위가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 가구의 1위는 말린고추로 나타남. 말린 고추는 50대에서 2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30위권내에 존재하지 않음.

- 즉석·동결식품은 20대 이하 가구에서 3위, 30대와 40대 가구에서 3위, 50대 가구에서는 4위로 상위권에 존재하나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8위로 낮아짐. 맥주 또한 20대 이하 가구와 30대 가구는 4위, 40대 가구는 6위이지만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18위를 차지함. 케이크의 경우에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는 낮아지는 특징이 있음.
- 두부의 경우 30대 가구에서 29위, 40대 가구에서 24위, 50대 가구에서 21위, 60대 이상에서는 14위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은 순위를 점함. 우유의 경우에도 20대 이하 가구에서는 10위이지만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3위를 차지함.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상위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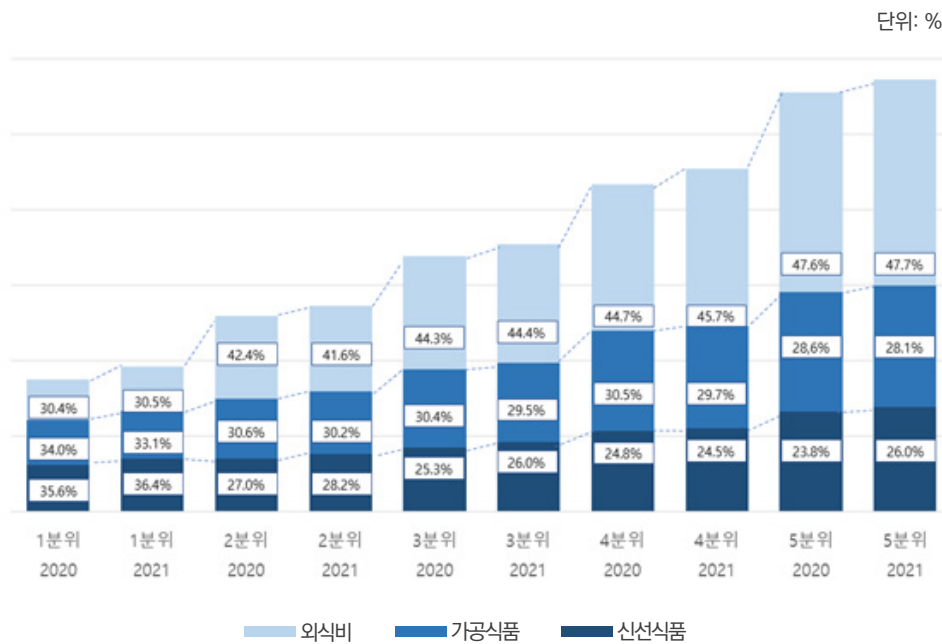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식빵및기타빵	9.9	식빵및기타빵	8.9	식빵및기타빵	8.4	식빵및기타빵	8.2	말린 고추	5.7
한과및기타과자	7.9	한과및기타과자	7.9	한과및기타과자	7.5	한과및기타과자	6.1	식빵및기타빵	5.7
즉석 동결식품	7.6	즉석 동결식품	7.6	즉석 동결식품	6.0	기타육류가공품	5.5	우유	4.6
맥주	6.6	맥주	5.4	기타육류가공품	5.8	즉석 동결식품	5.1	한과및기타과자	4.5
기타음료	5.4	기타육류가공품	4.6	우유	4.7	우유	4.3	기타육류가공품	3.9
아이스크림	4.8	우유	4.2	맥주	4.4	반찬류	4.0	떡	3.5
케이크	3.8	아이스크림	3.9	반찬류	4.0	맥주	3.6	요구르트	3.3
기타육류가공품	3.7	반찬류	3.8	아이스크림	3.9	커피	3.4	즉석동결식품	3.2
기타곡물가공품	3.6	커피	3.5	라면류	3.3	라면류	3.3	커피	3.1
우유	3.5	기타음료	3.4	커피	3.2	기타음료	3.0	반찬류	2.9
라면류	3.5	케이크	3.2	기타음료	3.2	아이스크림	3.0	기타곡물가공품	2.8
커피	3.3	기타곡물가공품	2.8	기타곡물가공품	2.6	기타곡물가공품	2.7	소주	2.5
생수	3.3	분유	2.7	요구르트	2.4	요구르트	2.7	라면류	2.3
반찬류	2.8	라면류	2.6	케이크	2.4	떡	2.4	두부	2.2
과일및야채주스	1.9	과일및야채주스	2.6	과일및야채주스	2.2	소주	2.3	과일가공품	2.1
양주	1.8	요구르트	2.1	소주	1.8	과일 및 야채주스	1.9	아이스크림	2.1
와인 및 과일주	1.7	생수	1.8	떡	1.7	과일가공품	1.8	기타음료	2.1
요구르트	1.7	소주	1.8	햄 및 베이컨	1.5	케이크	1.8	맥주	2.1
소주	1.7	떡	1.6	김치	1.5	김치	1.8	참깨 및 들깨	1.9
분유	1.5	사탕 및 젤리	1.4	과일가공품	1.5	생수	1.7	채소가공품	1.9
차	1.2	와인 및 과일주	1.3	기타조미식품	1.4	두부	1.7	젓갈	1.8
김치	1.1	기타조미식품	1.2	생수	1.4	말린 고추	1.6	김치	1.7
기타조미식품	1.0	이유식	1.2	사탕 및 젤리	1.2	채소가공품	1.4	생수	1.6
떡	1.0	김치	1.1	두부	1.2	기타조미식품	1.4	참가름및들기름	1.5
햄 및 베이컨	0.8	치즈	1.1	채소가공품	1.2	햄 및 베이컨	1.2	두유	1.5
사탕 및 젤리	0.8	과일가공품	1.1	치즈	1.1	김	1.1	김	1.4
과일 가공품	0.8	차	1.1	차	1.1	두유	1.1	과일및야채주스	1.4
치즈	0.7	햄 및 베이컨	1.1	소시지	1.1	차	1.0	마른멸치	1.3
기타미분류식품	0.7	두부	1.0	어묵	1.1	어묵	1.0	젓,꿀,조청	1.2
국수류	0.7	소시지	0.9	김	1.0	국수류	1.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5.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지출액 변화

-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식품 지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외식비 비중이 확대됨. 소득분위가 5분위인 가구에서 2021년 외식비 비중은 47.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고 4분위 가구의 외식비 비중이 전년 대비 1.0%p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2분위 가구에서는 0.8%p 감소함.
- 모든 소득 분위에서 2021년 가공식품비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신선식품 비중의 경우 소득 4분위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5분위의 경우 2020년 23.8%에서 2021년 26.0%로 2.2%p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함.

소득분위별 식료품비 지출액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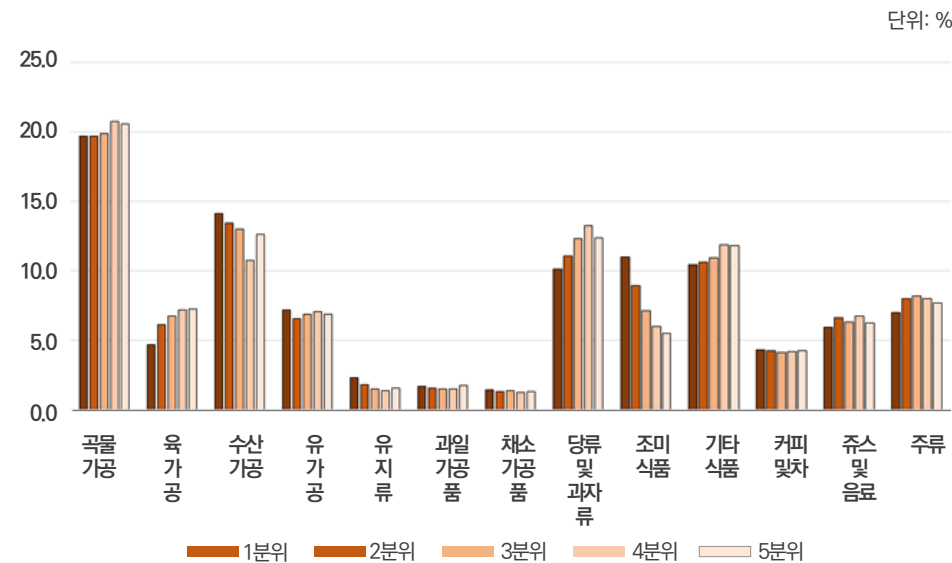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분류별로 지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곡물가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기타식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특히 육가공품은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가구의 비중은 4.7%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비중은 7.3%로 소득 분위에 따른 격차가 큼.

- 기타식품의 경우 이전에는 소득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21년에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남. 기타식품 비중은 소득 1분위 10.4%, 2분위 10.6%, 3분위 10.9%, 4분위와 5분위 11%이상 수준임.
-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은 수산가공품과 채소가공품, 조미식품임.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가구의 수산가공품 비중은 14.1%인데 반해, 소득 5분위 가구의 비중은 12.6%이며, 조미식품 비중은 1분위 가구 11.0%, 5분위 가구 5.5%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식빵 및 기타빵의 비중 순위가 1순위, 한과 및 기타과자 2순위로 나타남. 2020년에 소득 1분위 가구에서 말린 고추가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에는 지출이 감소하여 4순위로 순위가 낮아짐.
-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출비중 순위가 낮아지는 품목은 말린고추, 라면류, 두유, 김, 소주 등임. 반면, 기타육류가공품, 아이스크림, 맥주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기타육류가공품은 소득 1분위 가구에서는 7위를 차지하지만, 소득 2~4분위 가구는 4위였으며, 소득 5분위 가구에서 3위를 차지함. 맥주와 아이스크림의 경우 소득 1분위 가구에서 각각 12위와 16위를 차지하지만 맥주는 소득 2분위~4분위 가구에서 6위, 아이스크림은 4분위 가구에서 7위에 랭크됨.

소득 분위별 가구의 지출액 상위 품목 변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식빵및기타빵	6.0	식빵및기타빵	7.1	식빵및기타빵	7.4	식빵및기타빵	8.2	식빵및기타빵	8.6
한과및기타과자	5.1	한과및기타과자	5.9	한과및기타과자	6.8	한과및기타과자	6.9	한과및기타과자	6.6
우유	4.9	즉석동결식품	4.7	즉석동결식품	5.1	즉석동결식품	5.3	기타육류가공품	5.5
말린고추	4.4	기타육류가공품	4.5	기타육류가공품	5.0	기타육류가공품	5.1	즉석동결식품	5.1
즉석동결식품	4.0	우유	4.3	우유	4.2	우유	4.5	우유	4.4
반찬류	3.7	맥주	3.7	맥주	4.0	맥주	4.2	반찬류	4.0
기타육류가공품	3.5	말린고추	3.5	반찬류	3.3	아이스크림	3.5	맥주	3.8
커피	3.3	커피	3.4	커피	3.3	반찬류	3.5	아이스크림	3.5
라면류	3.2	반찬류	3.4	아이스크림	3.1	커피	3.2	커피	3.3
요구르트	3.0	라면류	3.2	기타음료	3.1	기타음료	3.0	기타음료	2.8
기타곡물가공품	3.0	기타음료	3.0	라면류	3.1	라면류	2.9	요구르트	2.7
맥주	2.8	기타곡물가공품	2.9	기타곡물가공품	2.7	기타곡물가공품	2.7	기타곡물가공품	2.7
떡	2.7	소주	2.8	요구르트	2.5	요구르트	2.6	라면류	2.6
기타음료	2.7	아이스크림	2.7	소주	2.4	케이크	2.2	케이크	2.4
소주	2.6	요구르트	2.6	떡	2.3	떡	2.2	과일및야채주스	2.4
아이스크림	2.3	떡	2.4	말린고추	2.3	과일및야채주스	2.1	떡	2.3
두부	2.1	생수	2.0	케이크	2.0	소주	1.9	과일가공품	1.8
생수	2.1	과일및야채주스	1.7	과일및야채주스	1.7	생수	1.5	소주	1.5
김치	1.9	케이크	1.7	생수	1.7	과일가공품	1.5	와인및과일주	1.5
과일가공품	1.7	김치	1.6	과일가공품	1.6	말린고추	1.5	두부	1.4
두유	1.6	두부	1.6	두부	1.5	김치	1.5	김치	1.4
젓갈	1.5	과일가공품	1.6	김치	1.4	두부	1.4	기타조미식품	1.4
채소가공품	1.5	채소가공품	1.4	채소가공품	1.4	기타조미식품	1.3	채소가공품	1.4
참깨및들깨	1.4	두유	1.2	기타조미식품	1.3	채소가공품	1.2	생수	1.3
참기름및들기름	1.4	김	1.2	햄및베이컨	1.1	햄및베이컨	1.2	말린고추	1.3
김	1.3	기타조미식품	1.1	김	1.0	시탕및젤리	1.1	햄및베이컨	1.2
과일및야채주스	1.2	참깨및들깨	1.1	차	1.0	김	1.1	차즈	1.2
국수류	1.1	젓갈	1.0	기타수산물가공품	1.0	차즈	1.0	차	1.1
마른멸치	1.1	햄및베이컨	1.0	국수류	1.0	기타수산물가공품	1.0	김	1.0
케이크	1.1	참기름및들기름	1.0	두유	0.9	차	1.0	기타미분류식품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6. 2021년 가공식품 소비의 특징

- 2021년 식품소비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에 비해 약간 둔화되었으나 영향이 상당부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됨. 식품 물가 증가를 고려한 실질 식품 소비 증가 추세가 2020년 3.8%, 2021년 3.4%로 확인됨.
- 식품 유형별로는 신선 식품 지출 증가가 계속되고 외식 지출 감소추세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가공식품 지출이 정체된 특징을 보임. 2021년 곡물가공, 육가공, 유지류, 조미식품, 주류의 증가세가 확인되어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에 따라 집밥 증가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외식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2020년과 같은 즉석·동결식품, 커피 및 차 등의 급격한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또한 2021년 라면류 지출액 순위가 하락한 반면 반찬류 순위가 빠르게 상승한 것은 '때우기' 식의 식사에서 '간편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는' 식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즉석·동결식품이 포함된 기타식품의 경우 2020년에는 가구주 연령수준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지출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 가구주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대별 지출 차이가 크지 않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대까지 소비가 일반화된 특징을 보임. 반면, 소득분위별로는 2020년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2021년 4~5분위 가구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품질 차별화에 따른 고급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음료,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행태에 큰 차이를 보임.
- 가공식품 지출이 가장 많은 계층은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임.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과일가공품/채소가공품/조미식품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주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 기타식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은 수산가공품과 채소가공품, 조미식품임.